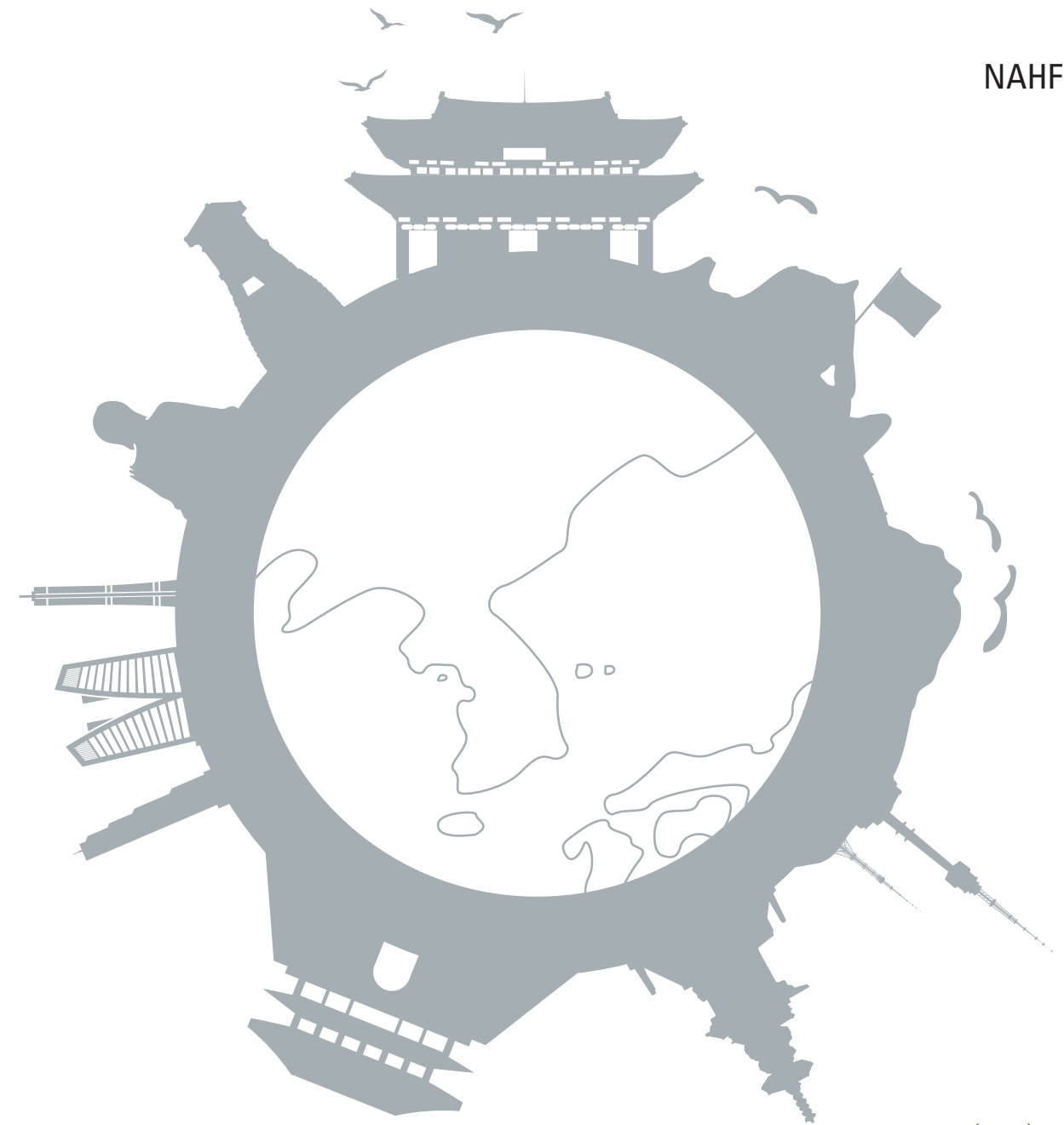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2014 동북아역사재단 활동·성과 보고서

—  
NAHF Annual Report



Designed by 유원애 (02 899 2278)

쫓구쳐오른 백두산 멧부리들이 온누리 동안 감싸안은 드넓은 천지가 눈앞에 나타나는  
눈깜박할 사이 그 자리에서 나는 그냥 숨이 막힌다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백두산  
그리메가 하늘보다 더 푸른 천지에 넉넉한 것을 드리우고 메꽃은 우레소리 지나간  
여름 한나절 아득한 옛 하늘이 내려와 머문 천지...

오탁번, '백두산 천지' 중에서



2014년 주요 성과

#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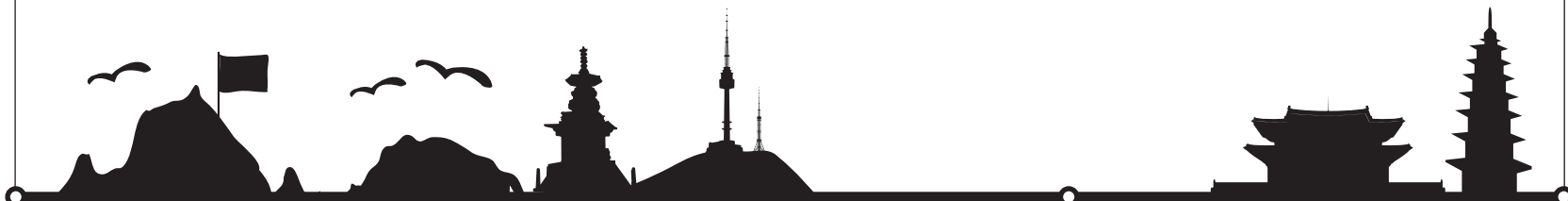
## 역사·영토 조사·연구 사업

1. 고조선·고구려·발해 등 한국 고대사 조사·연구	13
2. 독도, 동아시아 영토·해양 관련 조사·연구	14
3. 독자적 동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자료 편찬	15
4. 출판 및 동북아 역사DB의 이용활성화 제고	16
확대경   <중국 정사 외국전 역주> 전 29권 완간	18

# 제3장

## 역사인식 교육·홍보

1. 대상별 맞춤형 대중 역사교육	31
2. 동아시아사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운영	32
3.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	34
확대경   '서울에서 만나는 독도' 독도체험관 운영과 독도 수호 의지 확산	36



이사장 인사말	06
동북아역사재단 소개	08

# 제2장

## 역사·영토 관련 정책 대응 노력

1. 정책 현안 및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1
2. 정책 현안 개발 및 건의	21
3. 국제사회와의 정책 네트워킹 강화	22
4. 정부 정책지지 기반 확충	24
확대경   일본의 퇴행적 역사도발과 재단의 대응	26

# 부록

1. 2014년 주요 발간물	40
2. 주요 (학술)행사 개최	41
3. 학술회의 개최 지원	43
4. 기획연구과제	44
5. 정책과제	44
6. 연구용역 지원	45
7. NGO 지원 활동(국내)	46
8. NGO 지원 활동(해외)	47
9. MOU 체결 현황	48
10. 해외초빙학자	49

## 이사장 인사말

06



2006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8년 동안 동북아 역사문제와 독도·동해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정책 지원활동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 기반을 다지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각별히 2014년은 더욱 격화된 주변국의 역사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을 모색했던 한 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안 문제의 대응과 아울러 역사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연구를 축적하고 중장기적 전략을 동시에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3.1운동 100주년, 광복 100주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역동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모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활동성과는 재단 구성원들의 정성과 열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계,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각층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입니다. 여러 모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만,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 지난 1년 간 재단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도 재단은 동북아 역사·영토 문제 및 독도·동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면서 연구·사업 역량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역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힘을 합하는 한편, 동아시아 역사평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가시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재단은 청소년, 역사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과 독도 영유권 수호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홍보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특히, 착수 8년 만에 <중국 정사 외국전> 역주 사업을 완료한 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거센 역사 도발에 기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 독도체험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내외에 역사와 영토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과시한 점 등을 주요한 실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한일협정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동번영을 위한 역내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하지만,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과 이로 인한 갈등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단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대응하면서 역사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적극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주권 수호에 앞장서는 한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나아가 세계 유수의 역사·영토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재단의 노력에 많은 질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학 준

김학준

07

# 동북아역사재단 소개

재단의 미션 · 비전 · 전략

## 미션

올바른 역사인식 공유를 통한  
동북아지역의 평화 · 번영  
기반 조성

##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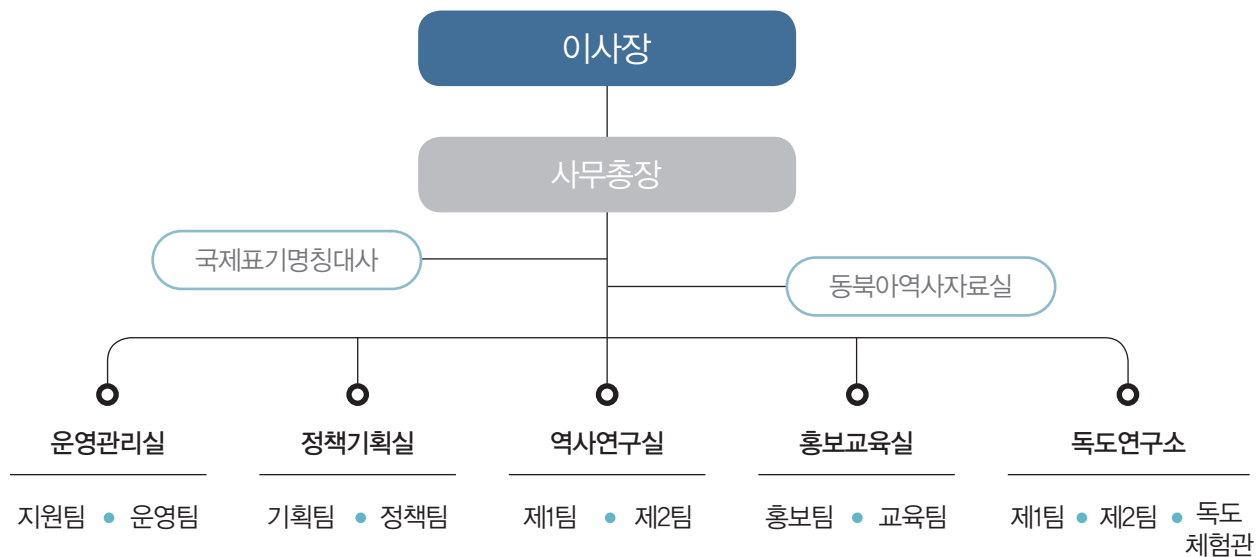
동북아시아  
역사 · 영토 연구를  
주도하는 세계적  
싱크탱크

## 전략방향

### 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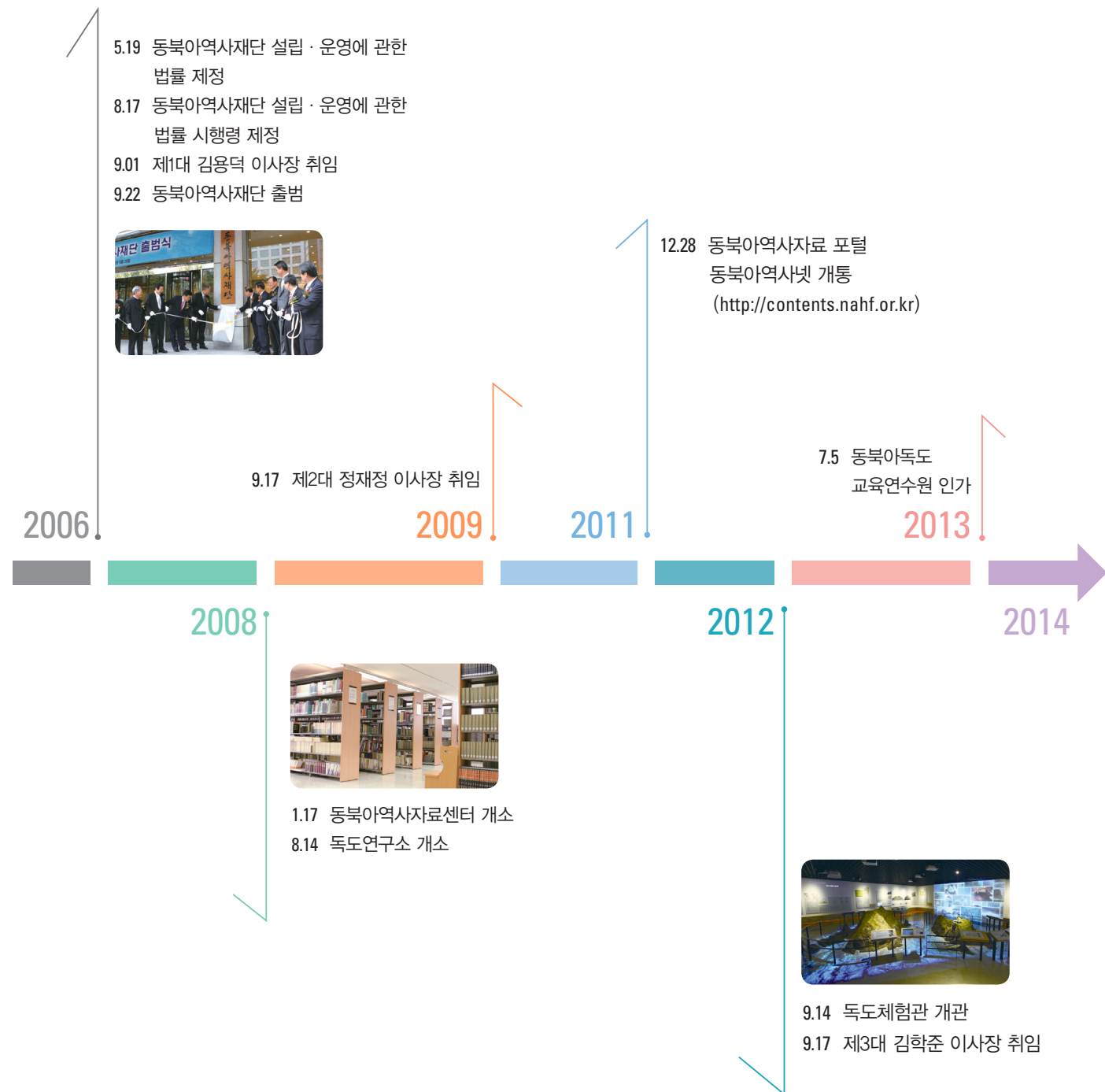
- 조사 · 연구 허브 실현**  
 동북아 최대 역사 · 영토 아카이브 구축  
 양질의 연구성과 축적 극대화  
 연구 · 학술활동의 국제화
- 선제적 정책 · 전략 개발**  
 역사정책 개발 · 지원 활동 강화  
 국내외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역사 · 영토 관련 국제사회 인식 제고
- 역사인식 홍보 · 교육 활성화**  
 홍보채널 · 콘텐츠 다양화  
 올바른 역사인식 교육 강화  
 역사체험 활동을 통한 인지도 제고

### 조직도



# 동북아역사재단 소개

## 연혁



# 2014 주요 성과

- 제1장 | 역사·영토 조사·연구 사업
- 제2장 | 역사·영토 관련 정책 대응 노력
- 제3장 | 역사인식 교육·홍보

# 제1장

역사 · 영토 조사 · 연구 사업



재단은 2014년에도 주변국 역사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문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고조선 · 고구려 · 발해 등 우리 고대사와 독도, 동아시아 영토 · 해양문제에 대한 조사 · 연구는 재단이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연구 · 사업 영역이다. 특히 고조선 등 우리 상고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이 분야 연구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재단은 역사 · 영토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도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국문(3종), 영문(2종)의 학술지를 발간하여 관련연구를 진작하고 국제학계에 우리 입장을 알려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 시각의 '동아시아론'을 개척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을 치열하게 경주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중국정사 외국전 역주> 시리즈 29권의 완간, 역사지리 연구의 추진과 광범위한 사료 수집 · 정리, 동북아 역사DB 구축 및 서비스 체계의 개선 등이 이런 노력의 결실이다.

## 1.

### 고조선 · 고구려 · 발해 등 한국 고대사 조사 · 연구

1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11.19~21)  
2 고구려 사신 모사도 제작 및 국립중앙박물관 전시(12.23)

### 고구려사 연구기반 구축 및 확산

재단은 2014년 광개토왕비 건립 1600년을 맞아 두차례에 걸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고구려 유민 연구와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아마 벽화의 모사, 전시 등을 통해 고구려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11.19~21)
- 고구려 유민 연구 학술회의(2.18~19)
- 고구려 사신 모사도 제작 및 국립중앙박물관 전시(12.23~)



### 발해 유적 · 유물의 조사 · 발굴 및 지원 활동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역사의 주요부분이지만 사료의 부족과 현장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연구의 장애가 적지 않은 분야이다. 재단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에 발해 유적을 발굴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북한 회령지역 발해유적 발굴조사
- 러시아 연해주 크리스크노 발해 유적 발굴조사
- 『연해주 크라스크노 발해성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3 토제 불탑 모형 유물  
4 염주성 도로유구(남북방향)



### 고조선 등 상고사 연구 활성화

2014년은 상고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한 해였다. 재단은 우리 민족의 기원과 고조선 문제 등과 관련한 학술회의 및 특강(13회), 연구과제 수행(18건), 유적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하면서 주변국과의 역사논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고 있다.

- 상고사 학술회의 개최(10.2)
-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12.10)
- 고조선의 개국(신용하 전 서울대 교수, 1.28), 고조선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정배 문화재위원장, 9.23) 등 상고사 관련 간담회 9건
- 몽골 서부 지역 암각화 조사 및 도면 제작
  - 동굴벽화(1개), 암각화 유적(6개), 사슴돌 유적(1개), 24개의 암면에 그려진 형상 채록 및 파일화

5 상고사 학술회의(10.2)  
6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12.10)



## 2.

### 독도, 동아시아 영토·해양 관련 조사·연구

#### 독도 현안 및 표기 관련 연구

일본의 우경화 추세가 고착화되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도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재단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지도 연구, 관련 사료의 DB화를 추진하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자료 편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독도 관련 지도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독도관련 지도 연구 체계를 정립하는 등 독도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다.

#### 동아시아지역 영토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

중국은 소위 '장백산 문화론'을 주장하고, 백두산 일대의 역사 및 경제자원을 개발하면서 백두산에 대한 역사·문화적 연고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단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 국경·영토 문제의 역사적 연원과 정책결정 요인 등에 관심을 경주 하면서 관련 쟁점의 학문적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 3.

### 독자적 동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자료 편찬

- 조선과 명청 간 외교사료 및 국경관련 사료 번역
- 동아시아 지역의 국경·영토 문제 관련 사료 번역 및 발간
  - 일본 고문서 번역, '야나가와 시게오키 공사기록 상/하' 번역서 총 2책 발간
  - 국경문제를 다룬 『중조변계사』번역
  - 『청러관계사료(1)』번역
  - 러시아문서관 소장 자료 수집·해제(시베리아 횡단 철도 부설 관련 1,200컷 등 총 3,400컷), 도서 2종 발간(『제국주의 유산과 동아시아』, 『쿠릴문제: 역사, 법, 정책 그리고 경제』)

동아시아사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 시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학계와 일본학계의 자국중심 주의적 역사관을 극복할 사료의 발굴·해석과 논리를 축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단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중국과 주변지역의 관계, 동북아 역사지리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관계사 사전 편찬도 다년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재단은 이런 학문적 노력을 통해 주변국의 왜곡된 역사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동아시아사 연구를 견인할 지식체계를 착실히 구축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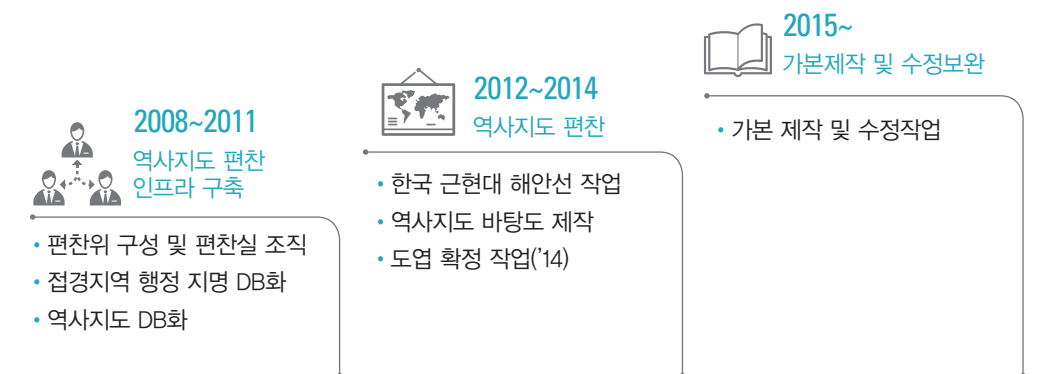
#### <중국 정사 외국전 역주> 시리즈 전 29권 집대성

중국 중심주의 역사관을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중국왕조의 정사(正史) 중 '외국전' 부분을 번역·해제하여 주체적으로 동아시아사를 해석하고 국제학계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 pp.18~19 참조

#### 동북아역사지리 심화연구

역사상 우리 민족의 활약과 발전과정, 관련 지명 및 공간연구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역사지리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국제학계의 동아시아 관련 역사지리 정보는 대부분 주변국의 인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단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이래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완성도 높은 역사지리 정보의 지식체계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의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 4. 출판 및 동북아 역사DB의 이용활성화 제고

### 『동아시아관계사사전』편찬

동아시아사 속 한국사의 위상을 확립하고 역사상 명멸했던 다양한 역사 주체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전 편찬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단은 학계의 역량을 모아 인물, 사건, 지명, 용어, 연구 경향 등 3,572 항목에 달하는 사실과 개념을 정리 중이며, 2014년도에 전근대 시기 351 항목 집필을 마쳐, 총 3,547 항목의 집필을 완료했다. 내외부의 검토, 보완을 거친 후 재단 아카이브에 탑재하여 학계와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재단은 출판 및 역사DB 구축과 서비스 등을 통해 연구·사업의 성과를 학계와 국민들과 공유해 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친취적 역사인식이야말로 역사갈등을 넘어 우리 미래를 설계해 나갈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동북아역사논총』 등 3종의 학술지를 발간하여 동북아 역사·영토문제와 독도 연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역사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역사문제가 학술적 논쟁을 넘어 국가전략과 긴밀히 연동되고 있다. 재단은 이런 점에 유념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2종의 영문학술지를 발간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 정기 학술지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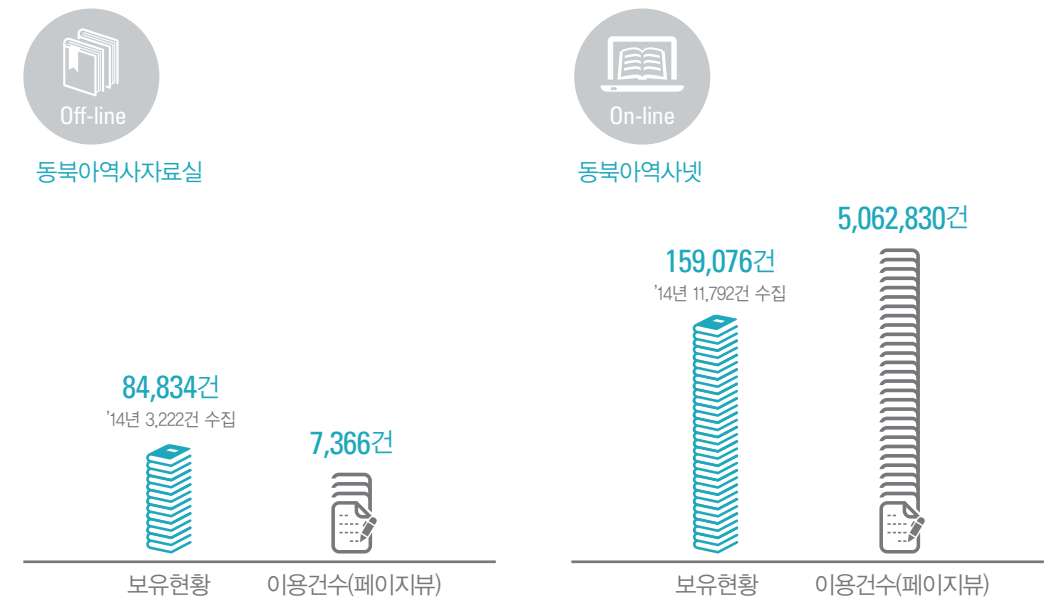
구분	발간주기	주요내용
동북아역사논총	분기(4회)	•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금 문제(이상의 외 4명) 등 31편의 논문 수록
국문 영토해양연구	반기(2회)	• 독도의 해양부유물 설치에 따른 예비시나리오 분석(황지욱) 등 14편의 논문 수록 100회
동북아역사문제	월 1회	• 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연구 및 자료 동향(서현주) 등 36편의 논문 수록
영문 JNAH*	반기(2회)	• Casualty of the Cold War: The Cairo Declaration and Its Historical Legacy in Northeast Asia(James I. Matray) 등 24편의 논문 수록
영문 JTMS**		• Maintaining Maritime Peace in East Asia: A Legal Perspective (Keyuan Zou) 등 16편의 논문 수록

\* JNAH(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국제학계에 한국사 연구 성과 소개 및 관련학술논문 게재  
 \*\* JTMS(The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독도·동해 문제에 특화된 전문학술지 지향

### 동북아 역사·영토 관련 정보의 광범위한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재단은 동북아 역사·영토연구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사료 발굴,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온라인화 공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동시에 기록 보존, 자료 서비스의 고도화, 빅데이터 구축 등의 장기적 계획을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역사·영토 연구를 주도하는 세계적 싱크탱크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2014년 말 재단이 보유하고 있거나 재단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온오프라인 보유 자료 및 이용 현황 ]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DB 이용률 향상 ]

구분	이용현황	내용	비고	
국사편찬위원회 (www.koreanhistory.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150,000건	한국역사분야 자료의 통합메타데이터 제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1,925건	국내외 학술논문 및 단행본 자료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창조자산마당	50,732건	역사·전통문화 소재의 디지털 콘텐츠 등 정보 및 자료 제공	MOU체결 ('14.8.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nl.go.kr/nill)	상호대차서비스	2,145건	국내 도서관 간 자료신청 서비스 제공	

\* 재단이 구축한 역사자료는 위의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고, 시스템의 확장,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중국 정사 외국전 역주> 전 29권 완간



### 추진배경

재단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명사』에 이르기까지 22종의 중국 정사(正史) 중 외국이나 인근 민족에 관한 기록인 '외국전'(外國傳)만을 뽑아 번역, 해제하고, 2014년 29권 분량의 시리즈로 완간하였다. 2014년 발간한 부분은 「요사·금사·원사 외국전 역주」, 「명사 외국전 역주6, 7-토사전(중, 하)」 등 3권이다.

### 추진경과

재단은 2007년 이래 8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였는데, 여기에는 대만, 일본, 오키나와 일본 등 해양지역은 물론 중앙아시아, 티베트 등 '서역'과 몽골 등 북방 지역을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 추진 경과

구분	1차 역주 및 출판 ('07~'11)	2차 역주 및 출판 ('12~'13)	출판 완료 및 관련 연구 ('14)
추진실적	「사기」~「오대사」 외국전 출판(19권)	「송사」~「명사」 외국전 출판(7권)	출판 완료(3권) 및 기획연구

### 발간의의

중국 정사의 체제와 내용에는 중국 왕조의 시각이 강하게 투사되어 왔으며, 특히 외국이나 주변국에 관한 서술은 철저히 중국 중심적인 논리를 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정사 외국전>의 역주, 발간은 중국의 대국주의적 역사관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가 세계학계의 중국 변방사 및 내륙아시아사 연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동안 2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중국 정사의 해제, 교열, 역주에 참여하였다.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되 중국 중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표현들은 주석을 달아 그 실체를 설명했다. 특히, 해당 국가나 민족의 역사 기록이나 고고유물을 최대한 검토하여 '정사'에서 서술된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뛰어넘어 당시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정사 전체에서 외국전만을 역주하여 발간한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은 이번 학문적 성과가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일반시민에게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 및 교류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조감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

서명	서명
1 史記 外國傳 譯註	16 新唐書 外國傳 譯註(中)
2 漢書 外國傳 譯註(上)	17 新唐書 外國傳 譯註(下)
3 漢書 外國傳 譯註(下)	18 舊五代史 新五代史 外國傳 譯註
4 後漢書 外國傳 譯註(上)	19 宋史 外國傳 譯註 1-外國傳(上)
5 後漢書 外國傳 譯註(下)	20 宋史 外國傳 譯註 2-外國傳(下)
6 三國志·晉書 外國傳 譯註	21 宋史 外國傳 譯註 3-蠻夷傳
7 宋書 外國傳 譯註	22 遼史·金史·元史 外國傳 譯註
8 南齊書·梁書·南史 外國傳 譯註	23 明史 外國傳 譯註 1-外國傳(上)
9 魏書 外國傳 譯註	24 明史 外國傳 譯註 2-外國傳(中)
10 周書·隋書 外國傳 譯註	25 明史 外國傳 譯註 3-外國傳(下)
11 北史 外國傳 譯註(上)	26 明史 外國傳 譯註 4-西域傳
12 北史 外國傳 譯註(下)	27 明史 外國傳 譯註 5-土司傳(上)
13 舊唐書 外國傳 譯註(上)	28 明史 外國傳 譯註 6-土司傳(中)
14 舊唐書 外國傳 譯註(下)	29 明史 外國傳 譯註 7-土司傳(下)
15 新唐書 外國傳 譯註(上)	

# 제2장

역사·영토 관련 정책 대응 노력



2014년은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인식이 역주행을 거듭하면서 한일 양국간의 갈등국면이 지속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역사전쟁’을 방불할 만큼의 논쟁이 격화되었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은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초청 등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 정책 형성과 결정에 기여하면서 주변국의 역사왜곡을 넘어 새로운 동아시아를 설계한다는 설립취지에 부응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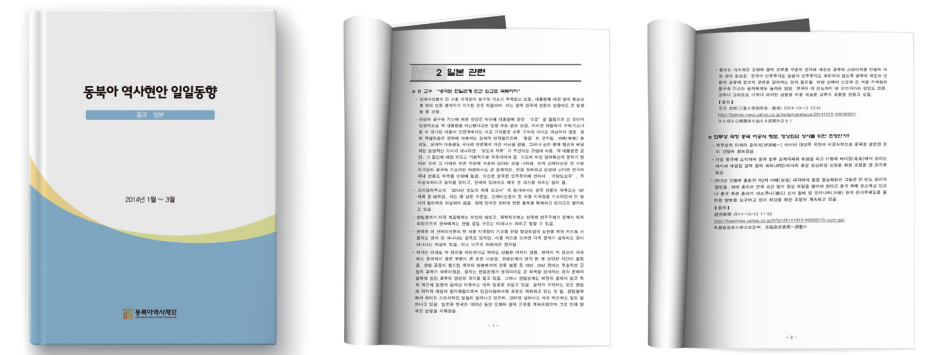
특히, 재단은 역사갈등 국면이 국제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 유념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정책개발 및 사업을 활성화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재단은 관련국 동향 파악과 분석 능력 개선, 해외 초청학자 사업과 국내외 NGO와의 연대 등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미국, 중국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이 그 대표적 예이다.

정부의 통일기반 조성 노력에 부응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한국사를 정립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는 점도 특기할 일이다.

## 1. 정책 현안 및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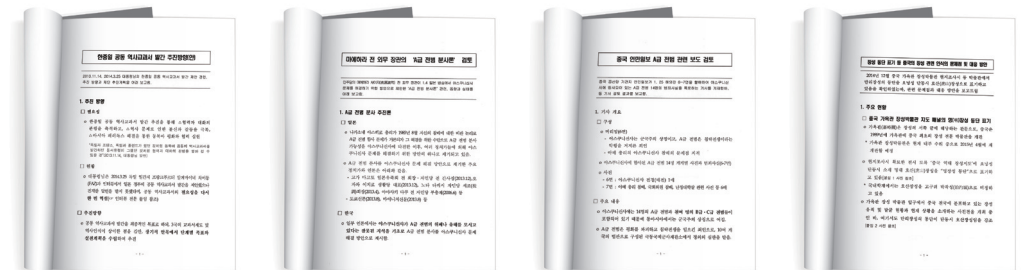
재단은 역사·영토문제와 관련한 중국, 일본의 주요 매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연구·사업 및 정책개발 등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2015년부터는 이런 노력을 강화하여 미국과 유럽 등지의 관련 동향도 파악,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재단은 중국과 일본 등의 학술동향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있다.



## 2. 정책 현안 개발 및 건의

### 역사 현안·주요 정책과제 개발 및 건의

재단은 모니터링 결과와 관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안 및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역사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조력해 왔다. 2014년의 경우 49건의 정책 보고와 36건의 동향보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구미학계의 한국사 연구·교수현황, DMZ의 평화적 이용 추진과정상의 국제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 등 중장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 정책능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

재단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고전번역원 등 유관기관과도 한국사의 국제화, 교과서의 수집·분석을 포함한 협조체제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면서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다해왔다.

1 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고전번역원 역사 관련(5개) 기관 간 업무협의(8.26)



## 3. 국제사회와의 정책 네트워킹 강화

###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및 지원

동아시아의 질서가 급격히 개편되어 가면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역사·영토문제를 단순한 학술의 문제가 아닌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다루어 나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역사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진 배경이다.

재단은 이런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들과의 연계망을 확장하고 역사·영토문제에 대한 다기한 문제영역을 점검하면서 중장기 정책자원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학술회의 개최

- 한국-러시아 정책협력포럼(4.23)
- 한국-카자흐스탄 정책협력포럼(9.11)
- 한국-베트남 정책협력포럼(9.24)
- 한몽 공동학술회의 (동아시아 속의 한국과 몽골, 9.16-17) 등



#### 국제학회참가

- 미국아시아학회(AAS) (고구려 패널구성, 참석)
- 세계국제법학회(ILA)
- 미국지리학회(AAG)
- 국경연구학회(ABS)
- 미국정치학회(APSA)
- 미국지리협회(NCGE)
- 미국사회교과협회(NCSS) 등



#### 학술회의 지원

- 제8회 동아시아사연구포럼 (동아시아 문화속의 한국, 11.7-8), 80여개 기관·단체의 학술회의 지원

### 해외학자 초청사업

재단은 2007년 이후 국제학계의 영향력 있는 학자 및 전문가 초청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전파하면서 한국사의 국제화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모두 44명의 학자·전문가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14년에도 재단은 6개국 15명의 학자·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활발한 학술교류를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 킹스 칼리지 아담 보넷(Adam Bohnet) 교수와 중국 산둥대학의 진상승(陳尙勝) 교수가 대표적이다. 보넷 교수는 해양사 등 새로운 연구영역에 대한 국제학계의 최근 동향과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브리지 한국사'(CHK, *The Cambridge History of Korea*) 기획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중국 국가 차원의 청사 편찬 프로젝트인 '청사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진상승교수는 '청사공정'에서의 한국사 서술방향을 설명하고 재단과의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캠브리지 한국사' 시리즈 (CHK, *The Cambridge History of Korea*) 기획 사업



재단은 '캠브리지 한국사' 시리즈 (CHK, *The Cambridge History of Korea*) 발간기획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7월 11일 발간·기획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캠브리지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각국사에 관한 통사적 저작으로, 중국학계는 일찍이 1979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8권 중 15권을 발간하였고, 일본학계도 1988년부터 1999년까지 6권의 일본사 시리즈를 완간하여 국제학계에 자국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동남아편 2권과 내륙아시아편도 2권이 발간된 상태이다. '캠브리지 한국사' 시리즈 발간은 국제학계에서 한국사의 연구기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중 역사대화 등의 추진

재단은 201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국책연구기관간 합동전략대화(12.17, 중국 북경)'에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였다. 2014년에는 인문사회분과 간사기관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대국주의적 역사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상을 수립하기 위해 학술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확대하였다. 한편, 또 다른 한중 역사대화의 장(場)인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11.20, 중국 시안)에도 참가하여 한중 인문교류와 관련한 재단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 2 '한중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대화' 참가(12.17)
- 3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11.20)



한편, 재단은 2014년 2008년 이후 중단되었던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와 역사대화를 재개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독·폴 화해 25주년 기념학술회의 등에 참가하여 동아시아 역사화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등 재단과 정부의 역사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4 독폴화해 25주년 기념 학술회의 (11.12~13)



#### 4. 정부 정책지지 기반 확충

#### 국내외 NGO와의 교류 협력

재단은 위와 같이 정책참여 활동,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및 국제사회에서의 정책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내외 NGO 등과의 활발한 연계활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 형성과 국내외 시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4년에도 역사 NGO 활동가 대회 개최(6.21~22, 일본, 20개국, 연인원 2000명 참가), 제12회

5 동아시아 역사와 야스쿠니신사 학술회의(8.21)



6 '남북한 학술교류와 분단국 역사 인식' 국제학술회의(11.14)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회의 지원(5.31, 일본 동경), 야스쿠니 관련 시민 활동가 및 연구자 국제회의 개최(8.21) 등 일본과의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구축(14건)에 노력하였다. 독도사랑운동본부와의 협력, 재독 독도지킴이단이 주축이 된 독일 독도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홍보하였다.

#### 남북한 학술교류 및 정부의 통일기반 조성 노력 지원

통일준비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학문적 대비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재단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상을 제시하여 통일 후 세계사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제의 발굴과 학문적 성과 축적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궁극적으로 재단은 '통일시대 한국사'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역사상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재단은 '재외한인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한인 역사문화 네트워크로' 학술회의(9.26), '남북한 학술교류와 분단국 역사 인식' 국제학술회의(11.14) 등을 개최하면서 정부의 통일기반 조성 노력에 적극 부응하였다. 그밖에 '통일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 '압록강 수계의 공동이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일본 해역사 연구, 성과 소개 및 방법론 모색', '한국 역사상 통일 전략과 현재적 의미',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과 해소방안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 일본의 퇴행적 역사도발과 재단의 대응

2014년은 역사·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어느 해보다도 거센 한 해였다. 일본은 독도, 일본군 '위안부', 교과서 등과 관련하여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일관계를 갈등 국면으로 몰고 갔다. 아베 정권이 역사·영토문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다루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한 반발이 일게 되었고, 한일 역사갈등의 전선이 국제사회까지 확대되었다는 것도 2014년의 특징적 양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은 정부 유관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일본의 우경화와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분야별로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2014년 한일 간 역사갈등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쟁론이 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다. 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담화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주장에 체계적으로 반박하였다. 특히, 1995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였던 당사자인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를 직접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아베정권의 위험한 행보를 비판하였다. 일본의 역주행이 국제사회의 쟁점이 되면서 미국, 중국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관련 정책보고와 국영문 자료의 발간·배포에도 힘썼다.

#### 학술대응

- 일본의 고노담화 재검증 결과 발표 관련 토론회 개최(6.23)
- 무라야마 前 총리 초청 간담회 개최(8.22)
  - "무라야마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묻는다"
-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10.28)
  - 아사히 신문 위안부 관련 증언(요시다 세이지) 정정 보도 대응



무라야마 前 총리 초청 간담회 개최(8.22)

#### 국제사회 공조

- 남북한·중국 일본군 '위안부' 국제학술회의 참가(5.30, 중국 연변)
- 중국 길림성 당안관(문서보관소)과의 공동대응체제 구축
  - 중국 길림성 당안관 소장 일본군 '위안부' 자료 조사(1회)
  - '일본 관동군 헌병대' 자료 등 재단 및 외교부, 여성가족부 합동 조사 실시(6.10~13)
  - 중국 길림성 당안관 연구원 초청 간담회(8.21)
  - ※ 지속적인 자료교환, 공동연구를 위한 당안관과의 MOU 체결(12.15)
- 중국 남경 당안관(문서보관소) 소장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번역(1건)
- 미국 학계·시민단체·대사관과의 공조(2회, 11.2~9, 12.11~15) 등
  - 민디 코틀러, 마이크 혼다 의원 등 '위안부'문제 전문가, 유력정치인 초청 간담회 및 면담
  - 미국 '위안부' 기림비 방문 및 래리 닉시 등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입장 설명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5.31, 8개국 400여명) 참가 등

#### 자료 발간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영문 번역(1책)
  - 「위안부 공격을 넘어-고노담화와 일본의 책임」
- 국·영문 핸드북 등 자료 발간(2종) 및 배포
  - 「알기 쉬운 문답 일본군 '위안부」 발간·배포(1,000부)
  - 일본군 '위안부'영문 핸드북 *The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제작(1,000부) 및 해외공관 배포
- 일본군 '위안부' 주제 전시회 개최 준비('15.8 예정)
  - 전시자료(판넬 25장)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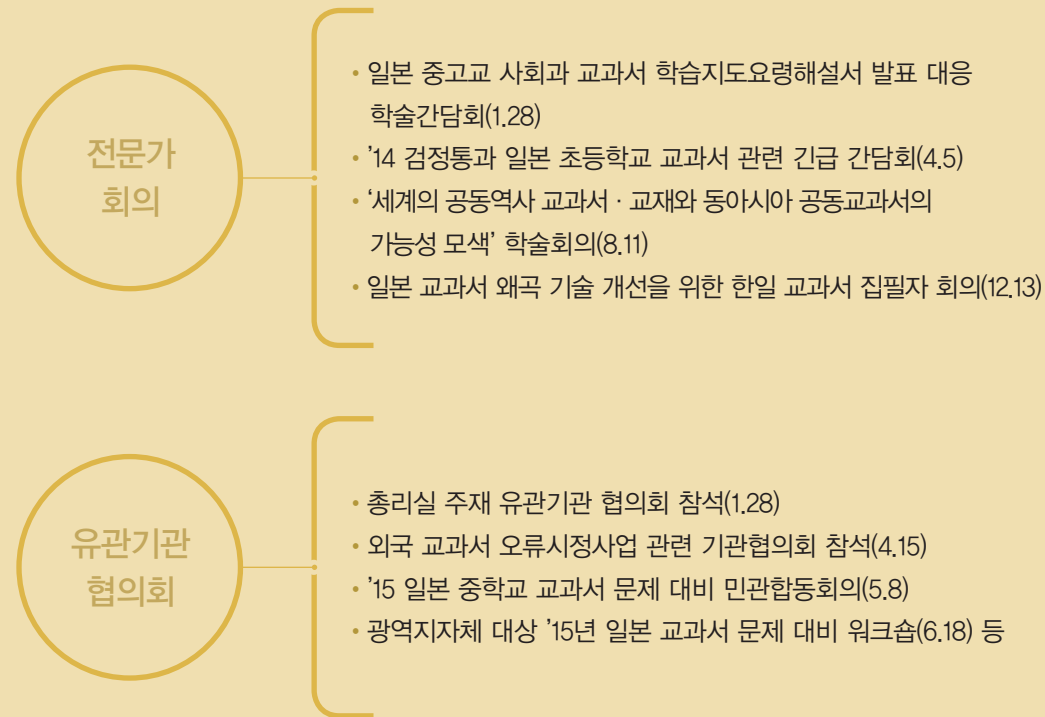


나의 집 |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제공

'위안부'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 '골려감'

### 일본 교과서 서술 시정 촉구

역사·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교과서의 왜곡된 기술은 이것이 일본 정부의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사실과 인식을 차세대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재단은 우리 국민과 여론에 정확한 정보와 비판 논리를 제공하고 일본 교과서 기술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재단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12종의 독도 및 한국사 관련 기술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논리와 근거를 토대로 14개 주제 62항목에 대한 수정 요구자료를 작성하였다. 관계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학술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교과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정책 형성에 기여하였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일제 침탈사' 학술회의 개최와 관련 자료 발간

일본은 역사문제 관련 연구·홍보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주변국과의 '역사전쟁'을 도발하였다. 재단은 2014년 일본의 공세적 조치에 대응하여 '일제 침탈사'의 주요 쟁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식민지 지배 청산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재단은 국제학계와 공동으로 '일제침탈사' 국제공동연구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일본 식민지 억압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일제강점기 중국, 동남아, 호주 등 주변국들이 겪은 강제동원 피해를 다룬 이 회의는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동북아·동남아 지역별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제공동연구 워크숍(7.29, 4개국 7명 발표)과 국제학술회의(11.20~21, 8개국 11명 발표)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0월 14일에는 '일본군 731부대의 교훈과 기억의 공유'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일본군 731부대의 잔학행위와 비극적 경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일제가 저지른 야만적 행위를 고발한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문제」를 발간하였다.

###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모색을 위한 학술적 노력

재단은 위와 같이 일제 식민지의 불법성과 비인도적 지배를 고발하는 한편, 건전한 한일관계를 설계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도 병행하였다. ▲식민지배 책임론에 대한 사례와 한일관계를 검토한 '한일관계 50년,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 국제학술회의(6.20), ▲한국, 일본, 호주 등 전문가들이 '식민지 청산'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학술적 동향을 교환하며 일본의 우경화 반박 논리를 공유한 '식민지 청산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국제학술회의(11.28) ▲8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한일협정 이후 한일관계를 정치·역사, 사회·문화, 경제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회고,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한일 관계 50년' 국제학술회의(3회, 8.26, 10.18, 11.1) 등이 그것이다.



식민지책임 청산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11.28)

# 제3장

## 역사인식 교육 · 홍보



교육과 홍보는 우리의 올바른 역사관을 차세대에 전승하고 역사·영토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해 나가기 위한 재단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이다.

2014년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은 국가적 수준에서 막대한 홍보예산을 투입하여 역사·영토문제에 대한 자국의 논리를 전파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은 교육·홍보의 내용과 방법론을 끊임없이 혁신해 가면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재단은 전략적인 교육·홍보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다.

재단은 그동안 미래세대, 외국인 및 재외동포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내실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4년에는 동북아역사 교육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여,

동아시아사 교육 인프라 구축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독도체험관’이 한층 활발하게 운영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국민들의 독도 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고,

외국인들에게 일본의 억지 주장을 체험적으로 확인하는 공간을 구축,

운영하겠다는 재단 의지의 결과였다.

### 1.

#### 대상별 맞춤형 대중 역사교육

#### 미래세대(초·중·고) 맞춤형 대중 역사교육

재단은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변국 역사왜곡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차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유념하여 대상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일본의 독도 도발이 노골화되면서 『초·중·고 독도바로알기』의 개발, 보급 등 독도교육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다. 동북아 역사·영토문제에 대한 체계적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도서, 산간,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역사강좌’를 실시한 것도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해 나가는 저변을 적극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를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2014년 주요 대중 역사교육 활동 ]

구분	주요 성과	주요 내용	비고
찾아가는 역사강좌	55개교 5,000여명 교육 실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강화 등	강의 만족도 85.6점
『초·중·고 독도 바로알기』 개발·보급	초·중·고 별로 특화된 교재 3종을 개발·보급 * 각각 자연환경, 역사문화, 국제법적 측면에 중점	전국 11,675교에 200만 부 제작, 보급	연간 10시간 내의 학교별 독도교육에 활용 (정규, 체험, 계기교육 등)
다양한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 대회 등	
	독도지킴이 거점학교 운영 지원	60개교 지원	
	NIE(신문활용)경진대회	신문을 활용한 역사인식 함양 (전국 58개 중·고교, 1044명 참가)	

#### 외국인과 일반인 대상 역사교육 활성화

재단은 2014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주한 원어민 교사,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사에 대해 긍정적이고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기획은 주변국 역사왜곡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알려나갈 유용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 1 동북아역사 아카데미 입학식 (3.5)
- 2 교육기부박람회(9.18~21)



## 2. 동아시아사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운영

3 동아시아 역사·영토 교육 및 연수의 방향 모색 학술회의(11.4)

특히, 국내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동북아역사 아카데미'는 상하반기 두 차례 15주에 걸쳐 한국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원어민 유치원 교사는 7개국 1269명, '동북아역사 아카데미'에는 14개국 92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국내학교 및 중국 충칭시 중고교생 80명을 초청하여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강연도 실시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 공동의 피해자였던 한중 양국 청소년들이 역사화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교육기부 행복 박람회'에 역사체험활동 부스를 운영(9.18~21)하는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 행사에는 1,000여명의 방문자가 참여하여 광개토태왕비 탁본뜨기, 독도모형 만들기 등 홍보 및 체험교육 활동에 참가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 '동아시아사'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활용

2012년 동아시아사가 고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이후 재단은 관련 교재의 개발, 전문교사 양성 등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4년에는 '인물로 본 동아시아 근대사'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교원(40명), 중등교원(40명)을 대상으로 각각 60시간 집합연수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사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교원 양성과 교수법 전수는 우리 청소년의 개방적, 합리적 사고와 상호 존중의 동아시아사 교육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역사교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

재단은 2014년 '동아시아사' 교원 연수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역사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독도관련 지식의 보급에 노력하였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크게 ▲ '독도의 명칭과 한국사료', '대한제국과 우리 땅 독도' 등 독도의 지리·역사 및 국제법 관련 내용들로 구성된 15차시의 집합연수(3회, 120명), ▲ 역사 강연을 포함한 2박 3일간의 독도탐방 현장 연수(6회, 250명), ▲ 독도와 '동아시아사 교육 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사이버

연수(3500명)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교육의 만족도가 95%이상에 달할 만큼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중, 한일 교원간의 교환연수 프로그램이다. 2014년에는 한국 8명, 중국과 일본에서 각 4명씩의 교사가 참여하여 역사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 한·중·일 공동 역사교육 기반 구축

한중일의 역사갈등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평화라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 3국 공동의 역사교육 기반을 주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은 역사갈등에 대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재단은 그 설립 취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 평화를 선도할 차세대 육성과 교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재단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중일 대학생 3개국 순회 합동수업을 실시하였다. 총 16회, 1,100여명이 참가하여 동북아시아 역사갈등 해법에 대한 미래지향적 교육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2014년에는 중국이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여 한·중·일이 함께 사용할 시대별/학교급별 역사부교재 집필기준 마련을 위한 '한중일 공통교재 실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실시도 의미있는 진전이었다. 젊은 대학(원)생들 간의 교류로는 '한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들 수 있다. 한중 양국의 대학(원)생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2014년에는 27개 팀이 참여하여 10개 팀이 수상하였다. 한중 양국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논문의 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역사갈등의 해소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행사가 되어가고 있다.

4 한·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발표대회(8.19)



### 3.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

2014년 재단이 주력한 활동 중의 하나는 주요 언론을 통해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에게 확산하는 것이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지지확보가 역사논쟁의 향배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면서 재단 임직원의 기고, 인터뷰 및 공동 기획 등의 언론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런 노력과 병행하여 디지털 세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SNS 등 최신 미디어 활용도 향상 및 대중친화성을 구현하기 위한 웹사이트 개편도 추진되었다.

#### [ 기고 및 인터뷰 ]

- 국내적으로 222건의 언론보도 활동, 95건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다.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중국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 기고 등의 활동도 전개하였다. 그리고 월간으로 내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뉴스레터 발간, 배포, 미국아시아학회(AAS) 도서전, 제주포럼 등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설치하여 재단의 활동을 소개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 [ 독도 에세이 콘테스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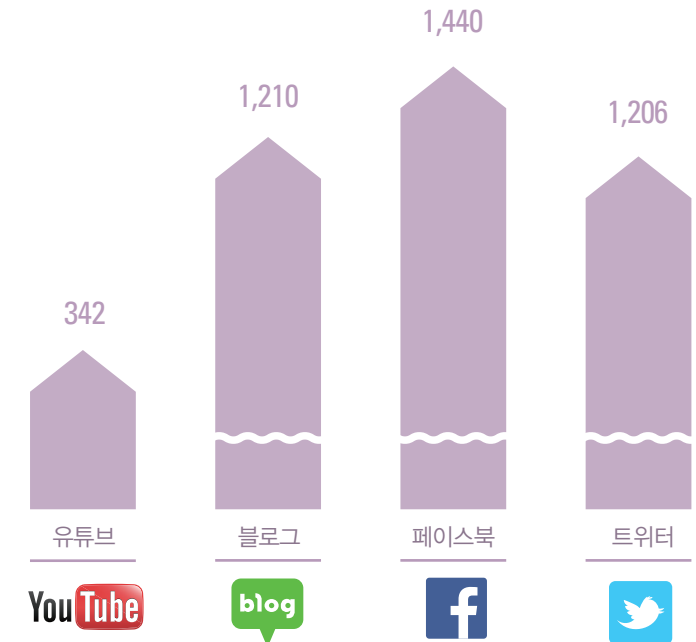
- 재단은 매년 The Korea Times와 International Dokdo Essay Contest를 개최하고 있다. "The meaning of Dokdo for Koreans" 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4년도 제5회 독도 에세이 콘테스트에서는 국내외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그 중 12명의 수상자가 선발되었다.



#### [ 뉴미디어 홍보 ]

- 다른 한편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였다. 특히, 독도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현안 정보 등 콘텐츠를 유튜브, 블로그 등에 4,000여건을 게시하여 역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단위 : 건)



# '서울에서 만나는 독도' 독도체험관 운영과 독도 수호 의지 확산

역사적·국제법상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상식을 넘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정확한 인식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재단은 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심도있게 추진 하면서 2012년 재단 입주 건물 지하 1층에 서울에서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독도 체험관을 개관하였다. 지금까지 9만 명 가까이 되는 방문객들이 체험관을 찾아 독도의 진실, 독도영유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입장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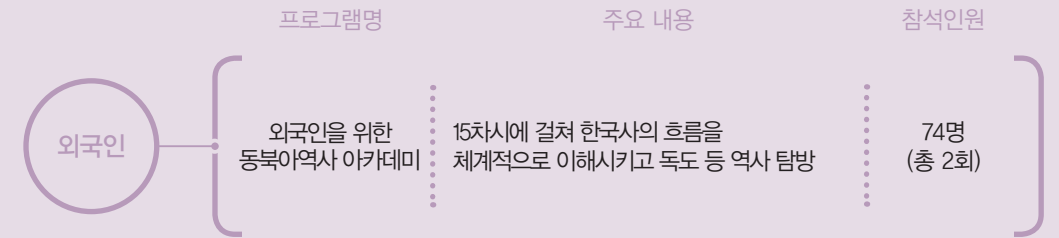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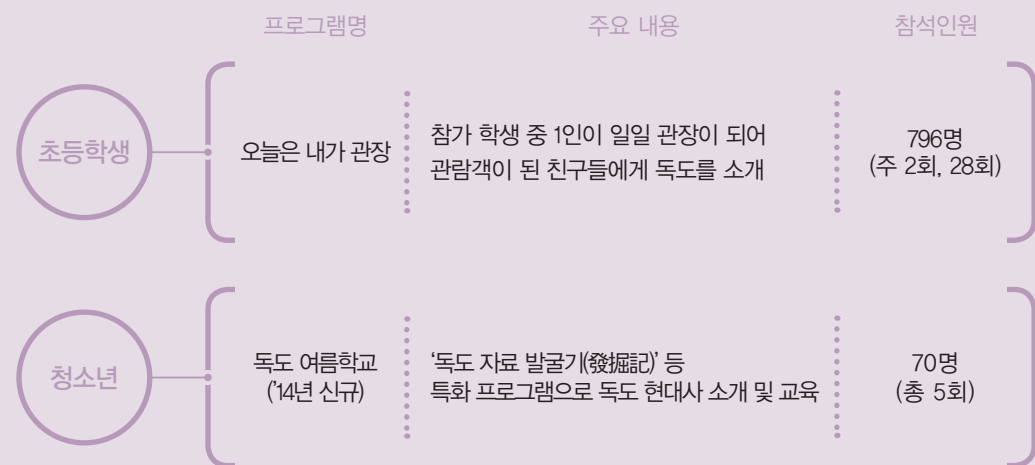


독도체험관 내부

## 주요 활동

독도체험관은 2014년 대상별 맞춤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미래세대 및 외국인들에게 일본역사왜곡의 진상과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주요 프로그램과 활동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별 맞춤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와 함께 ▲저명 사진작가 김중만 독도사진 순회 전시회(7.28~8.11, 서울), ▲독도·동해 고지도 전시회(3.22~4.6, 경기), ▲고지도 130여점 및 3D 맵핑 프로젝션을 활용한 독도 모형 등 영상자료 전시회(10.7~12.12, 대전) 등을 통해 홍보·교육 확산에도 노력하였다. 연인원 18,000여명이 이들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독도 사진전시회(7.28~8.11, 세종문화회관)

독도체험관은 외국인들이 독도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중국 파워블로거, 전 주일 중국대사, 지명표기위원회 위원장, Stars and Stripes, 요미우리신문 등 미국과 일본 언론인들의 방문을 적극 유치 하는 한편,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 및 AR영상(Augmented Reality: 실제 사물에 3차원의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복합한 4개국(한·영·중·일) 언어 해설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독도체험관을 찾은 해외언론단(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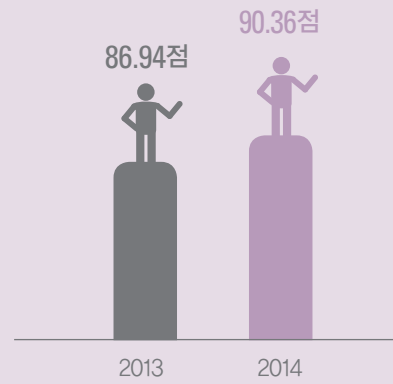


교육부장관방문(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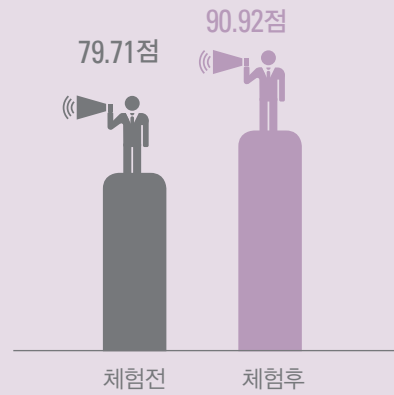
### 추진 성과

이런 노력에 힘입어 독도체험관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단도 교육, 홍보 노력을 더욱 체계화, 정교화해 나가고 있다. 내방객들이 자발적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300여건에 이르고, 독도체험관 방문 전후의 방문객 만족도와 인지도가 증가한 것은 이런 노력의 결과이다.

[ 만족도 개선 ]



[ 인지도 증가 ]



아래 그림은 독도체험관을 찾는 방문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국민은 물론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영향력있는 외국 전문가, 언론인 등을 적극 유치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방문객 증가 추이 ]

(단위 : 명)



# 부록

2014년 주요 활동 · 성과 세부 내역

## 2014년 주요 발간물

분류	제목	저자	발간년월
기획연구 61	기억의 정치공간	김정현, 김지훈, 신규환, 하세봉	2014.8
기획연구 62	중국의 역대 장성의 연구	홍승현, 송진, 최진열, 허인욱, 이성제	2014.12
기획연구 63	제국주의 유산과 동아시아	이근욱, 최정수, 김원수, 이영관, 최덕규, 최덕수, 김기윤	2014.12
기획연구 64	중국의 변경 연구	박장배, 이천석, 박선영, 정면, 심혁주, 이평래	2014.12
번역총서 34	전함 팔라다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곤차로프 / 김종현 옮김	2014.2
번역총서 35	역주 몽골 황금사	작자미상 / 김장구 역	2014.11
번역총서 36	쿠릴 문제: 법, 역사 정책 그리고 경제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 / 김종현 역	2014.12
역사교양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3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5
역사교양	현대 러시아의 해부	김학준, 장덕준 외	2014.8
연구총서 66	야스쿠니에 묻는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8
국문학술잡지	동북아역사논총(43호)	동북아역사재단	2014.3
국문학술잡지	동북아역사논총(44호)	동북아역사재단	2014.6
국문학술잡지	동북아역사논총(45호)	동북아역사재단	2014.9
국문학술잡지	동북아역사논총(46호)	동북아역사재단	2014.12
국문학술잡지	영토해양연구(7호)	동북아역사재단	2014.7
국문학술잡지	영토해양연구(8호)	동북아역사재단	2014.12
영문학술잡지	JNAH(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volume 11-1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6
영문학술잡지	JNAH(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volume 11-2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12
영문학술잡지	JTMS(The Journal of Jerritorial and Maritime) 1-2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6
영문학술잡지	JTMS(The Journal of Jerritorial and Maritime) 2-1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12
자료총서 34	중국 정사 외국전역주 - 요사 · 금사 · 원사 외국전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12
자료총서 35	중국 정사 외국전역주 - 명사 외국전 역주 6 - 토사전 중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12
자료총서 36	중국 정사 외국전역주 - 명사 외국전 역주 7 - 토사전 하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12
사진집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동해와 독도	독도연구소 편	2014.12
브로슈어	알기 쉬운 문답 일본군 '위안부'	동북아역사재단	2014.9
브로슈어	The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재발간)	동북아역사재단	2014.9
브로슈어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10개 국어 재발간)	동북아역사재단	2014.10

## 주요 (학술)행사 개최

학술회의(행사) 명	행사장	날짜
전국 중등 교원 일본사 연수: 한번에 끝내는 일본사	재단 대회의실	1.13-1.17
제5회 독도상 시상식	재단 중회의실	1.14
전국 중등 교원 중국사 연수: 현대 중국의 이해	재단 대회의실	1.22-1.24
일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 대응 학술회의	재단 대회의실	1.28
신용하 교수 초청 간담회: 고조선의 개국-단군왕검을 중심으로	재단 대회의실	1.28
동아시아사 교원현장연수(중국): 남경, 진강, 양주 역사와 항일유적 탐방	중국	2.16-2.20
한국고대사학회 합동 학술회의: 고구려 백제 유민 묘지명의 검토	한성백제박물관	2.18-2.19
주한외국인 대상 역사체험 교육	전주	2.24
제2기 외국인을 위한 동북아역사아카데미	재단 대회의실	3.5-6.25
고조선특강(신용하 교수): 고조선 문명의 형성과 한강문화	재단 대회의실	3.21
영토해양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재단 중회의실	3.24
한중일 영토 관련 전문가 워크숍: 한중일 영토교육 비교와 우리의 대응	재단 중회의실	4.2
일본 외교청서 관련 전문가 간담회	재단 중회의실	4.4
2014년도 검정통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전문가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4.5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문가(Mindy Kotler) 초청 간담회	재단 중회의실	4.25
안중근 · 이토히로부미에 대한 한중일의 평가와 역사교육	재단 중회의실	4.30
글로벌역사외교아카데미 9기 발대식	재단 대회의실	5.9
제1회 상고사 학술회의: 한국 상고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새로운 인식	재단 대회의실	5.13
주한외국인 대상 역사체험 심화교육	경기	6.14
동북아역사재단 제14기 역사아카데미: 뽀(Fun)한 역사, 색다른 이야기	재단 대회의실	6.19-10.25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	재단 대회의실	6.20
동아시아의 박물관과 역사교육 워크숍	재단 중회의실	6.30
캠브리지 한국사 시리즈 개발 워크숍	재단 중회의실	7.11
제7회 중국 청소년 초청 역사 체험교육	서울	7.14-7.18
제6회 역사영상심포지엄	일본 릿쿄대학교	7.19
전국 중등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동아시아속의 한국사	창덕여자중학교	7.21-8.1
글로벌역사외교아카데미 10기 발대식	국립중앙박물관	7.25
우리의 아름다운 섬 독도-독도의 사계, 김종만 특별 사진전-	세종문화회관	7.28-8.11
일제침탈사 국제공동연구 워크숍: 강제동원의 과거사 연구성과 평가와 향후전망	재단 중회의실	7.29
전국 초등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동아시아속의 한국사	재단 대회의실	7.28-8.8
일본 방위백서 발표 관련 대응방안 학술회의	재단 독도연구소 회의실	8.6
공동역사교과서 관련 학술회의: 세계의 공동 역사교과서 · 교재와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과서의 가능성 모색	동국대학교	8.11
독도교원연수 1기	재단 대회의실	8.11-8.13

학술회의(행사) 명	행사장	날짜
독도교원연수 1기	재단 대회의실	8.11-8.13
제5회 영문 독도에세이 콘테스트 시상식	롯데호텔	8.14
독도교원연수 2기	재단 대회의실	8.18-8.20
한중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시상식 및 논문발표대회	재단 대회의실	8.19
독도교원연수3기	재단 대회의실	8.21-8.23
제9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한성백제박물관	8.23
한일관계 50년 총서발간(경제분야) 공동학술회의	일본 일한문화기금재단	8.26
글로벌역사외교아카데미 11기 발대식	재단 대회의실	8.29
해외연구기관 전문가 세미나: 국제해양법 발효 20주년의 동북아해양질서와 한일신뢰 구축	일본 히로시마시립대학	9.4-9.6
한-카자흐스탄 정책협력포럼: 한-카 역사문화적 유대	재단 중회의실	9.11-9.12
한몽공동학술회의: 동아시아 속의 한국과 몽골	재단 역사연구소 회의실	9.16-9.17
청소년을 위한 역사 콘서트	일산 킨텍스	9.18-9.21
독도탐방연수1기	독도	9.19-9.21
제2회 상고사학술회의: 고조선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재단 대회의실	10.2
2014 독도특별기획전 -한밭(大田)에 선 독도-	대전시립미술관근현대사전시관	10.7-12.12
일본군 731부대 관련 학술회의: 일본군 731부대의 교훈과 기억의 공유	재단 대회의실	10.14
한일관계 50년 총서발간(사회문화분야) 공동학술회의	일본 일한문화기금재단	10.18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국제학술회의	중국 길림성	10.19-10.22
한일관계 50년 총서발간(정치·역사분야) 공동학술회의	일본 일한문화기금재단	11.1
인문정신과 전통창작소재 국제컨퍼런스: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	국립중앙박물관	11.2
동아시아 역사·영토교육 및 연수의 방향 모색	재단 중회의실	11.4
2014 한불 국제학술세미나: 한불 지리교과서 속의 동아시아와 유럽	코리아나호텔	11.11
동아시아사연구포럼 공동개최 학술회의: 동아시아 문화속의 한국	연세대학교 장기원국제회의실	11.7-11.8
영토해양관련해외연구기관전문가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영토 해양 관련 연구	태국 타맛사대학	11.12-13
남북한 학술교류 및 분단국 인식연구	재단 중회의실	11.14
동북아 역사화해 학술인프라 구축 학술회의: 동아시아의 근현대 국제전쟁과 평화체제	재단 대회의실	11.14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국제학술회의	재단 대회의실	11.19-11.21
'일제침탈사 국제공동연구' 학술회의: 정의 아니면 현실	재단 중회의실	11.20-11.21
식민지책임 청산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재단 대회의실	11.28
세계의 해양, 영토, 국경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	한양대학교	12.11
재단-대한국제법학회 공동학술회의: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제주 해비치호텔	12.12
동아시아 이론연구와 서술 학술회의	중앙대학교	12.13
한국사 속에서 발해사의 의미와 위상 재 조망	한성백제박물관	12.16-12.17
한중포럼: 동아시아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한중 관계	서울그랜드힐튼호텔	12.23

## 학술회의 개최 지원

학술회의명	주관단체	날짜
러일전쟁 110년을 말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22
제6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한중일 관계의 현황과 동아시아 협력의 장래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5.23-5.25
제8회 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	(사)한국유럽학회	5.30
동양사학회 춘계학술대회-동아시아사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동양사학회	5.31
조선의 대외관계와 국경지역 사람들-조선시대 異國人和 만난 조선사람들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학회	6.14
한·일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사상적 조건-공공성과 관용-	한국일본사상사학회	6.21
고구려 세계유산 10년 국제학술대회-고구려 유산의 현황과 활용 그리고 전망	(사)고구려발해학회	7.4
제16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고조선연구의 새로운 모색	한국고대사학회	7.18-7.19
광복69주년 좌담회: 해방과 분단 그리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	서희외교포럼	8.12-8.14
독도영유권 수호와 해양안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8.14
제국질서와 국제질서 속의 조선과 한국	한국국제정치학회	8.22-8.23
동아시아 영토해양의 국제정치	(사)현대일본학회	9.19
만주학회 2014년 추계 학술대회-1940년대 동아시아와 만주	만주학회	9.27
중국고중세사학회 국제학술대회-중국 고중세 도시의 형성과 발전	중국고중세사학회	9.19-9.20
글로벌 한인을 향하여: 재외한인 네트워크에서 글로벌한인 역사문화 네트워크로	(사)재외한인학회	9.26
제4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 동북아 역사화해와 정치, 경제 질서의 변용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9.27-9.28
홍범도장군의 의병투쟁과 청산리전투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10.24
한반도의 역사문화 변천과 중국	중국조선사연구회	10.25
제20회 동해 지명과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세미나	(사)동해연구회	10.26-10.29
역사와교육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동아시아의 영토문제와 역사교육	역사와교육학회	11.7
동아시아문화속의 한국	동아시아사연구포럼	11.7-11.8
세계사 인식에 있어서 아메리카 문제	한일역사가회의	11.7-11.9
제6차 한중유학생포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청년지식인의 대응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11.11
제10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는 가능한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11.19-11.20
일본에서 독도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서울대 일본연구소	11.20-11.21
청일전쟁, 동학농민혁명과 21세기 동아시아 미래 전망	한국사연구회	11.21
패전후 귀환 일본인 기억의 다이내믹즘과 식민지·제국의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1.21
2014년 대한민국 국가 관행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사)세계국제법학회 한국지부	11.24
제7회 한일사회문화심포지엄: 일본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한일관계	재일한국인연구자포럼	11.28
제2회 아시아 미래지식인포럼: 아시아의 뉴실크로드를 개척하자	아시아 미래지식인포럼	11.29
한국병합조약 원천무효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기념 학술회의	한국역사연구원	12.8
유라시아 문명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	동국대 문화학술원 유라시아실크로드연구소	12.10
한중인문학술교류: 평화협력을 위한 동북아의 공동체를 다시 생각하다	(사)한국현대중국연구회	12.11
한중 경제협력의 도약과 뉴 로드맵	한중사회과학학회	12.12-12.15
과거사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해결에 필요한 국내적 합의수준의 모색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12.19
러시아연해주 한인이주 150주년과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미래발전 전망	(사)한국술라브학회	10.23-10.24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재)국제평화재단	5.28-5.30

## 기획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한중역사지도 비교분석 관련 '중국역사지도집'과 한중 경계의 역사인식(계속)	우성민
한중일 3국협력 연구 -1차년도 연구주제의 심화연구 : "역사·영토를 둘러싼 중일관계와 한중일 3국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차재복
일본의 과거사와 동아시아 안보 II	최운도
중국의 변강학 및 민족자치 연구(2년차)	박장배
동아시아 역사, 정통성, 경계 연구(3년차)	이종국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역사적·국제법적 연구	도시환
영문 한국사 서술과 방법론 연구(2년차)	이정일
알타이 문명 연구 3(중국 신강 알타이)	장석호
동아시아사 내용 구성을 위한 기초 연구	오병수
고구려 유민의 이동경로와 현황 조사와 연구	이성제
영토해양관련 국제사법판결 조사분석(III)	유하영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한 한·미·중·일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식	이명찬
통일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	이장욱
역사서술정신과 정치: 중국과 서양의 대비	이원택

## 정책과제

작성자	주제
김경태(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시아 중세 해양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동훈(목원대)	3~10세기 대흥안령 동쪽 사면지역 민족(사)연구 현황
구양모(Norwich University)	미국 내 동북아 싱크탱크/전문가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
안병민(교통연구원)	한중 해저터널 논의의 쟁점과 과제
류성희(뉴욕 주립대)	구미학계에서의 한국사 연구·교수 현황 및 발전방안
정대진(연세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상 쟁점과 해결방안
신주백(연세대)	동아시아 정세와 전략적 한일관계 설계를 위한 정책 방향

## 연구용역 지원

과제명	연구책임자	협약기간
중일의 영토해양정책 결정요인 비교연구(중국측)	김흥규(성신여대)	2014.3.31 ~ 11.14
중국과 일본의 영토해양정책 비교: 결정요인 비교를 중심으로(일본측)	신정화(동서대)	2014.3.21 ~ 11.14
세종실록지리지 영문번역을 위한 번역 대본화 2차년도 사업 및 전문용어집(glossary)사업	정명현((사)임원경제연구소)	2014.3.21 ~ 11.14
독도관련 한일고지도 비교연구	오상학(제주대)	2014.3.31 ~ 11.14
조선시대 전라도연안 및 도서관련 자료조사	김건우(전주대)	2014.4.14 ~ 11.14
Study of the Foreign Countries Policies for Repatriation and Protection of their Nations during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 with Focus on Central Asia	김게르만 (카자흐스탄 알파라리대)	2014.6.23 ~ 11.14
압록강 수계 공동 이용에 대한 역사적 검토	정안기(고려대)	2014.4.30 ~ 11.15
동북아 냉전질서의 형성과 일본(1945~70년대)	김준섭(한국국제정치학회)	2014.7.23 ~ 11.14
고·중세 한국 역사 속의 통일 전략과 통일 정책	박대재(고려대)	2014.6.13 ~ 11.14
9세기 일본의 통역(通譯)	정순일(고려대)	2014.2.28 ~ 11.15
청일전쟁 전후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과 이토 히로부미	방광석(인천대)	2014.2.28 ~ 11.15
중국의 '백두산 전략'	윤휘탁(한경대)	2014.2.28 ~ 11.15
금대(金代) 빈례(賓禮)를 통해 본 고려의 국제 지위	박윤미(숙명여대)	2014.2.28-11.15
한·일 정부의 사할린 한인문제 인식과 정책 변화	이신철(성균관대)	2014.2.28-11.15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문제 연구	정희선(청암대)	2014.2.28-11.15
광개토왕비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정호섭(한성대)	2014.2.28-11.15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아 공전벽화 3D 디지털 복원	서용(동덕여대)	2014.4.24-11.21
디지털 고구려 유적·유물 DB 구축	최종택(고려대)	2014.3.31-11.15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유물 자료정리	여호규(한국외대)	2014.3.31-11.15
북한(북청지역) 발해유적 발굴조사	정영진(연변대 발해사연구소)	2014.3.31-11.15
러시아 국립문서관 소장 한러군사관계 자료목록 작성 및 수집	박종효(고려대)	2014.3.31-11.15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	송정수(전북대)	2014.3.31-11.15
동북아역사지도 연구	윤병남(서강대)	2014.1.1-12.31
중국 정사의 『동이전』 역주	서영수(단국대)	2014.5.30-11.28
동북아시아의 고고학 문화와 고조선·삼한 연구	문창로(국민대)	2014.5.30-11.28
단재 신채호 등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고조선 인식 연구	윤명철(동국대)	2014.6.26-11.28
일제 강점기의 '만선사' 연구	윤해동(한양대)	2014.6.26-11.28
중국 내 출판 상고사 관련 보고서 분석 및 연구	이청규(영남대)	2014.6.26-11.28
국가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 연구	유태용(서해문화재단연구원)	2014.6.26-11.28
2014년도 시민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이동수(경희대)	2014.4.2-12.15
중국의 동북공정 시정에 필요한 한국상고사 연구의 방법	이승중(연세대)	2014.7.23-11.28
재야사서 위서론(僞書論)의 성과와 과제	조인성(경희대)	2014.7.23-11.28

과제명	연구책임자	협약기간
고조선의 적성총문화 연구-홍산문화와 비교를 중심으로	오대양(단국대)	2014.7.23-11.28
韓·中 고대 '국가' 형태와 조상 상상-단군과 황제(黃帝) 조상인식의 '고대적 기반' 비교를 중심으로	조우연(인하대)	2014.7.23-11.28
카와치 지역의 백제계 도왜인	정재윤(공주대)	2014.7.23-11.28
한국 고대의 신모(神母)와 국가제의(國家祭儀)-건국신화를 중심으로	채미하(한성대)	2014.7.23-11.28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립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조우관사절'에 관한 고찰 -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드로 간 원인, 과정 및 시기에 대하여	이재성((사)한국미술사연구소)	2014.7.23-11.28
중국 동북지역의 점북문화에 관한 고찰	박재복(경동대)	2014.7.23-11.28

## NGO 지원 활동(국내)

단체명	사업명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강제동원 피해회복과 일본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증언, 강연회 및 UCC 제작 공모사업
한국정신대연구소	대일과거청산 시민운동 기록집 발간-2015년 한일협정 50년을 맞아
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동북아평화정착을 위한 고구려, 발해유적지 안내지도 발간사업
국학운동시민연합	한중 역사갈등해소와 협력을 위한 연대사업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예작품 전시회 및 한일 평화인권 네트워크 구축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간토학살현장에서의 韓, 日, 在日 대학원론인 공동취재
국제평화인권센터(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 확산 미국 증언투어
아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일본 우경화와 아스쿠니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
합천평화의집	한국인 원폭피해자 바로알기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KIN(지구촌동포연대)	동포역사세계지도-연해주편 만들기
서울KYC	동아시아사 이해를 위한 중국 평화여행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안중근의사 재판의 국제법적, 역사적 재조명" 학술 시민대토론회
동학민족통일회	동북아평화의 광장을 만들어가는 청년평화순례
동아시아갈등해결 국제연대	동북아역사화해를 위한 국제NGO 네트워크 활용 사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한중일 시민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역사왜곡 시정
한일역사교류회	교육현장의 역사수업 및 역사교육 · 교류활동
역사NGO포럼	2014 역사NGO활동가 대회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교육과정

단체명	사업명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글로벌 역사외교 아카데미 운영
(사)한국이사부학회	독도수호 이사부 아카데미 운영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한중일 영토관련 공동수업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독도표기 오류시정 대장정
(사)한국독도연구원	민간차원의 동북아영토 국제학술회의
(사)글로벌 코리아 독도아카데미	강원도 중등교원 및 예술고등학교 독도 현장체험 문화행사
(사)한국수중환경협회	"독도지킴이" 독도주권수호 문화예술 행사
독도사랑문화예술인회	동해 독도사랑 제3회/제4회 문화공연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	2014년 1, 2차 독도최초주민 삶의 현장 탐방
(사)나라사랑 독도사랑	동해 독도사랑 멘토링 학습사업
(사)독도사랑운동본부	2014년 독도사랑 홍보사업 - 독도홍보수첩제작, 독도 SNS 기자단 발대식 등
(사)한일미래포럼	한일 시민의 국제이해 교육을 통한 교류강화와 상호인식 제고
(사)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찾아가는 독도교육 및 독도박물관
서울흥사단	서울 흥사단 청소년 독도수호대 2기
세이울	IHO사무국/지도업체에 동해수문장 엮서 보내기

## NGO 지원 활동(해외)

단체명	사업명
시민참여센터	커피버그 홀로코스트센터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
한미공공정책위원회	미주 시민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홍보사업
워싱턴지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세계2차대전 일본군 '위안부'기림비 관련 세미나와 전시
조국사랑 독도사랑 호주연합회	3.1절 행사, 독도순회 강연, 독도의 날 행사
재독 독도지킴이단	재독 독도지킴이단 활성화와 지속적 활동을 위한 안정적 토대 구축
Korean Culture, History, and Education Foundation of New England	Dokdo History Essay & Documentary Competition

## MOU 체결 현황

상대기관	협약내용	체결일자
국토지리정보원	- 올바른 지명표기를 통한 역사인식 함양 및 지리정보 발전 - 기관 간 보유한 각종 자료 및 시설의 공동 활용 등	3.18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 '외국인을 위한 동북아 역사아카데미' 수강생 추천 등	3.20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 광개토태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관련 사항	6.11
국립외교원	- 외교와 안보, 역사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공동 노력 - 해외학자 초청 및 학술회의 개최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폭넓은 정보 교류 등	7.17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 각 기관이 보유한 역사·전통문화 소재의 디지털콘텐츠 등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류, 제공 - 창조자산마당 아카이브의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공동개최 등 홍보 협력 등	8.2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 독도 및 역사문화 관련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홍보 상호노력 - 역사 문화의 세계화 전략 공동구축 및 추진 등	9.2
한성백제박물관	- 역사교육, 학술회의, 전시회 개최 등 역사·문화·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 및 협력 - 동아시아 역사, 문화, 교육에 관한 자료·정보 공유 - 역사교육, 학술회의, 전시 등을 위한 각종 행사 공동개최 등 홍보 협력 등	9.25
대구시교육연구원	- 교직원의 각종 연수 시 강사 활용 등 인적·물적 협력체제를 구축 및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운영의 장을 마련	12.11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당안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전시 하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보편적 인권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 노력 - 각자 소장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및 상호 기증 협력 등	12.15

## 해외초빙학자

이름	국적	소속	연구주제	체재기간
방민호(方民鎬)	중국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학원	근대(청일전쟁 전)한중관계사 연구	2014.9.1~12.1(3개월)
손춘일(孫春日)	중국	연변대학교 인문학원	동북아 역사문화경관과 한중일 대치되는 담론-일본식민지 문화경관을 중심으로	2014.4.1~8.1(2개월)
Steven Kim	미국	미국 국방부소속 아시아태평양센터 부교수	한국학계와 사회이론의 관계	2014.9.1~12.31(2개월)
장례항(張禮恒)	중국	聊城大學 역사문화학원 교수	폐쇄에서 개방-조선 후기 신사유람단 연구	2014.6.1~12.31(2개월)
Louis Arsac	프랑스	프랑스 교육부 소속 노르망디 지역대학 및 평생 교육담당관, 전 프랑스 외교부소속 대사관 해외협력관	영토문제에 직면한 국가적 위기와 지도제작의 역사	2014.7.14~8.14(1개월)
Alexan der BUKH	뉴질랜드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교 국제관계학 강사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영토분쟁과 식민사회	2014.10.15~1.15(2개월)
Sung-yoon Lee	한국 (미국 영주권 소유자)	미국 터프스대학 법률 외교전문 대학원 플래처스쿨 교수	통일된 한국의 부상을 위한 준비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해 관계	2014.7.1~8.1(2개월)
Igor Ermachenko	러시아	게르첸 국립사범대학교 세계사학과 조교수	19세기에서 20세기초 극동지역의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의 이미지와 국제관계	2014.8.15~10.15(2개월)
윤호(尹虎)	중국	청화대 사상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다오위다오 분쟁과 동북아정세에 관한 연구-한국의 역할과 영향을 중심으로	2014.5.1~7.1(2개월)
Alexander Kim	러시아	러시아 극동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조교수	발해 수령의 문제	2014.8.10~10.8(2개월)
Adam Bohnet	캐나다	영국 킹스 칼리지 역사학과 조교수	조선영토의 외국인들-17~18세기 여진, 중국, 일본의 후손들	2014.5.16~7.18(2개월)
이배덕(李培德)	중국	홍콩 중문대 경제 경영대 조교수	동아시아의 치열한 냉전: 1950년대-1960년대 홍콩, 대만, 일본에서의 미국문화 허위 선전	2014.8.15~10.14(2개월)
기진옥(祁進玉)	중국	중앙민족대학 동북아 민족문화연구소	동북아시아 공동체 연구-초국경 문화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2014.12.22~2015.1.22 (1개월)
진상승(陳尙勝)	중국	산둥대 역사문화학원 교수	청사공정 조청관계 서술현황 파악	2014.12.6~12.11(1주일)
Jung-hee Lee	한국 (미국 영주권 소유자)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 미술학과	백제 및 고구려 예술사 왜곡에 대한 서구학계 일본학 전공자의 역할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재검토	2014.11.20~2015.1.20 (2개월)

그렇게 독도는 살아있다.  
그 고진 외로움 마다 하지 않고  
그렇게 독도는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생명과 절망과  
생명이 이름을  
우리의 후손에게 전해 줄 것이다.  
영원한 상징으로, 그것이  
사랑의 이름이다.

...

이제 우리는, 우리는  
그냥 독도가 되자.

사진작가, 김종만